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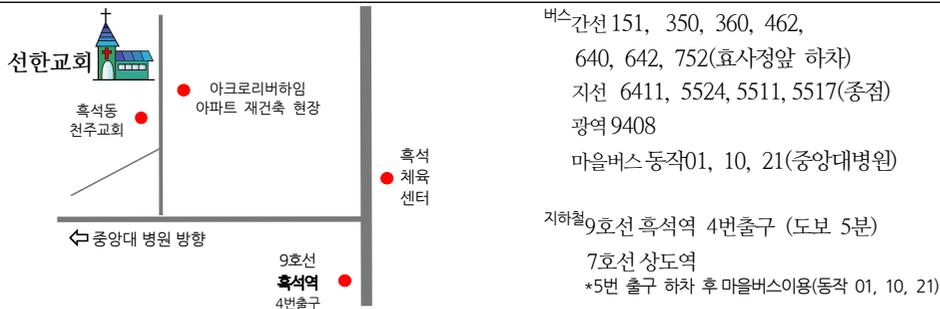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예배및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1: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1: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청 소 년 부 오전 9:50	마 리 아 회 오후 1: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청 년 부 오후 1:00	드 보 라 회 오후 1:00
	*월삭새벽예배 6:00		에 스 더 회 오후 1: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전임전도사 김진만 전임전도사 권인혁 협력전도사 오효남	파 송 선 교 사 강성규 (러시아) 협 력 선 교 사 양병순 (카자흐스탄) 이금주 (M국)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관 리 장 로 손석규
장 로	조 윤 익 (집사장) 김 대 희 박 희 태 유 신 웅 한 배 선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2호) 세종 선한교회 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딤후 2:1)

Be Strong In The Grace

실천사항 선교사의 삶 기도회 참석 서로 돌아보기

삶의 방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	---

신년감사예배



암송구절

내 아들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디모데후서 2:1)



기독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전 예배	오전 9: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오전 11:00	

기원	인도자
찬양과경배	8장 (통일찬송가 9장)
교독문	교독문 94번(새해)
찬양과경배	359장 (통일찬송가 401장)
예배기도	조운익 장로
찬양	드림성가대
말씀봉독	디모데후서 2:1~4
설교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임춘배 목사)
헌금드림	류은영 방성자 백미경
환영및광고	인도자
파송의노래	주를 위한 이곳에
축도	임춘배 목사
송영	드림성가대
성도의교제	다함께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	---------	------------	--------------

말씀봉독	웃자락에 새긴 결백 (사무엘상 24장) 임춘배 목사
------	------------------------------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신년감사예배** 오늘은 신년감사예배로 드립니다.
- 제직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제직회가 있습니다.
- 사무처리회** 1월 14일(주일) 예배 후
- 지방회일정** 일시 : 9일(화) 오전 11시
장소 : 수원행복한교회 (정연학 목사)
- 기관별수련회일정** 청소년부 : 11~13일(목~토), 기독교 캠프코리아(한국산업기술대학교)
- 기부금영수증신청** 기부금 영수증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에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록확인** 2018년 요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별로 주소와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달력** 준비된 달력을 가정별로 1부씩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용, 탁상용 둘 중 택일
- 매일성경강론** 주보에 성경 강론을 위한 참고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사용과 참여를 바랍니다. (월~금 주5일)
- 예배준비안내및정리** 각 셀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준비 및 안내가 있습니다.
오늘은 **흑석셀**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안양셀**입니다.

건축헌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025101-04-158561 예금주: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교회 입금 후 확인은 재정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석 집사 : 010-4333-6242)
--

2017년 성경강론 범위						
1/7	1/8	1/9	1/10	1/11	1/12	1/13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6장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예배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기를
담당목사님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날로 더하시기를

가정예배

“새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하라”

찬송 : ‘사랑하는 주님 앞에’ 220장(통 278장)

본문 : 요한복음 13장 34~35절

말씀 : 이 말씀의 장면은 주님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당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새 계명’을 준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하라’는 계명은 이미 구약 율법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면에서 주께서는 “율법에서 말하는 것 같이” 또는 “내가 전에 말하였던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사랑하라’는 계명은 왜 새 계명입니까.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성경은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그의 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을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 계명은 ‘새 계명’ 또는 ‘그의 계명’일까요. 34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단서가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새 계명으로 만드는 것이며, 이전의 사랑의 계명과 차별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단서 때문에 사랑하라는 계명은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니, 제자들은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사랑의 새 계명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십자가에서 피를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라고 주께서는 죽음 직전에 새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 계명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 나아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도록’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나아가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생명을 성령을 통해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출처 :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은혜의 말씀

제목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딤후2:1-4)

서론

새해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합니다.

1.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군사

- (1)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속에서 강해져야 한다(1).
- (2) 또 다른 사람들을 충성된 일꾼으로 가르쳐야 한다(2).
- (3) 함께 고난을 받고(3)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10).

본론

2. 실천사항

- (1) 선교사의 삶
- (2) 기도회 참석
- (3) 서로 돌아보기

결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배기도	조운익	김대희
헌 금 위 원	류은영 방성자 백미경	박영근 손영삼 심인섭
안 내	흑석셀	안양셀

찬양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가 390장/통일 찬송가 444장)
통독	사무엘상 22장
본문 내용	다윗이 아들람 굴로 가서, 이소식을 듣고 그의 가족과 사백명이 다윗에게 나아 옵니다. 다윗은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부탁하고, 선지자 갓의 지시대로 유다 땅 헤렛 수풀로 갑니다. 한편, 사울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동하자 도액은 논 땅에서 본 것을 사울에게 알립니다. 분노한 사울은 아히멜렉을 불러 다윗에게 떡과 칼을 준 책임을 묻고, 아히멜렉은 다윗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결국 사울은 아히멜렉을 비롯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도록 명령을 내리고, 오직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이 다윗에게로 도망 갑니다.
생각해보기	
1	<p>다윗의 추종자들(1-5)</p> <p>(1) 다윗이 아들람 굴로 도망했을 때 가족과 함께 사울 통치하에서 여러모로 억압받던 자들 400명 가량이 합류함</p> <p>(2) 이들과 함께 모압으로 갔을 때 선지자 갓이 나타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도록 지시하니 다윗 일행은 유다땅 헤렛 수풀에 이름</p> <p>(3) 추종자들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함께 고난을 감수해야 했지만 후에 다윗과 함께 영광을 누릴 미래를 소망하며 인내했다.</p> <p>(4)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인내로써 끝까지 견뎌야 한다.</p>
	<p>논 제사장 살육(6-23)</p> <p>(1) 다윗이 논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도움을 받은 것을 본 사울의 신하 도역이 사울에게 고발함</p> <p>(2) 사울의 명령에 따라 논 제사장 85인과 논 땅의 거민 모두가 전멸당하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이 겨우 다윗에게로 도망하여 옴</p> <p>(3) 이 사건은 비록 사울의 시기심, 그리고 도역의 간악함이 빚어낸 사건이었지만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성취된 것이기도 하였다(삼상2:31,32; 3:11-14).</p> <p>(4) 성도들은 시기심과 자신의 출세욕을 채우기 위해 악을 도모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p>
핵심 단어	논의... 칼로 찢더라 - '칼날'이라는 용어는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문맥에 주로 등장하며 특별히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아말렉 멸절 명령을 수행하는 문맥에서도 등장하였다. 본문은 사울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방 왕 아각에게 사용하지 않았던 그 '칼날'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일꾼인 제사장 무리에게 사용하고 있음을 부각시킴으로써, 결국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여호와에게 칼날을 사용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과 기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 주 예수 보다 더 (94장/통 102장)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p>워싱턴이 대통령이 된 후 한번은 각료들과 고향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각료들은 대통령에게 “각하, 대통령의 어머니는 이 나라의 어머니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일하게 하고 어머니는 쉬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했습니다. 대통령도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어머니와 마주 앉은 자리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라 하셨으므로 능력이 있는 한 나는 일할 것입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서야 할 여종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워싱턴의 어머니는 위대한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었습니다.</p> <p>우리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나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소명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소명 의식을 갖고 일을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며, 행복하게 됩니다.</p>
말씀 나누기	고린도전서 4:1~8
묵상포인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충성되고 겸손해야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반면에 일꾼의 가장 큰 적은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써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 받은 자는 오직 말씀 안에서 겸손히 생각하고 주의 깊게 판단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안에서 사역할 때 교만과 허영심의 유혹을 이겨 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충성되게 섬기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나요?(1절)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무엇인가요?(2절)
적용하기	하나님이 올해 내게 맡기신 사역은 무엇인가요? 각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며 섬길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바울처럼 겸손히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의지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전하는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성경 강독

보복과 용서, 선택의 순간

날짜 : 1월 12일

찬양	주 없이 살수 없네(찬송가 292장/통일 찬송가 415장)
통독	사무엘상 26장
본문 내용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이 자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아비새는 무방비 상태로 잠든 사울을 죽이라고 종용하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기쁨 부음 받은 자를 치는 일을 금하며,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의 건너편으로 가서 아브넬을 향해 질책합니다. 사울의 안전을 지키지도, 자신들의 습격을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사울에게 자신을 뒤쫓지 말기를 부탁하고, 사울은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며 다윗의 충정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기	
1	<p>사울을 살려준 다윗(하길라 산)</p> <p>(1) 십 사람으로부터 다윗이 하길라 산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울은 다시 군사 3천명을 이끌고 하길라 산앞에 이르러 진을 치고 야영함</p> <p>(2) 다윗은 밤에 사울의 진에 가서 자고 있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옴</p> <p>(3) 다윗은 멀리 산꼭대기에 서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책망하고 사울의 부당함을 항변함. 이에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윗에게 사과한 후 돌아감</p> <p>(4)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온유와 겸손한 자세로 일관하자.</p>
핵심 단어	<p>26:25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 본문은 다윗과 사울 사이의 대화가 끝난 직후에 두 사람이 각자의 행동을 취한 것을 나타낸다. 사울의 유화적인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사울을 떠나 자기 길을 갔던 것이다. 이는 다윗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시시때때로 말과 행동이 바뀌는 사울의 말을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p> <p>한편, '자기 길로' 에 해당되는 '레다르코' 의 원형 '데레코'는 일반적인 '길' 을 의미할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의 삶이나 행동의 방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문은 다윗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도망자의 생활과 더불어 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후 사울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뜻에서 벗어난 삶을 지속하다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과 다윗의 영원한 결별을 보여주는 본문은 인본주의자의 길과 신본주의자의 길은 결코 일치될 수 없으며 그 종착지도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p>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움직이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날짜 : 1월 9일

찬양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송가 408장/통일 찬송가 466장)
통독	사무엘상 23장
본문 내용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러 왔다는 소식을 접한 다윗은 측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일라로 가서 그들을 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도 다윗을 잡으러 그일라로 내려옵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이 가져온 예뵈므로 자신들의 진퇴를 묻고, 그일라를 떠납니다. 다윗은 십 황무지 수풀에서 요나단과 재회하고, 이들은 여호와 앞에서 다시 한 번 언약하며 헤어집니다. 그때 십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거처를 말해 주고,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내려갑니다. 다윗을 에워싸고 잡으려 할 즈음, 블레셋의 침공으로 사울은 급하게 돌아갑니다.
생각해보기	
1	<p>그일라 거민 구출과 밀고</p> <p>(1) 그일라에서 십 황무지까지(23-26장)의 2차 도피기 초기에 발생한 사건</p> <p>(2) 다윗이 도피자의 신세에 있었지만 추종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침입을 받은 그일라 거민을 구출함</p> <p>(3) 자신의 위치를 노출한 다윗을 사울이 집중 추적하는 가운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만남(위로)</p> <p>(4) 십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하여 사울이 마온 황무지까지 바짝 추적하였으나 때마침 블레셋의 침입이 발생하여 중도에서 포기하고 돌아감(보호)</p> <p>(5)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속에 살아가므로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담대할 수 있다.</p>
핵심 단어	<p>23:28 셀라하마느곳이라 - '셀라하마느곳'의 정확한 의미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분리의 바위' 와 '미끄러운 바위' 라는 의미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셀라하마느곳' 을 '미끄러운 바위' 로 해석하는 측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에서 빠져나갔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그곳을 빠져나갔다는 의미에서 '마홀레코트' 를 '미끄럽다' 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또다른 한편으로는 '분리의 바위' 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 바위가 사울과 다윗의 가운데 위치하여 양자를 분리시켰다는 의미이다. 이 사건은 사울이 블레셋의 침공으로 결국 다윗에게서 떠나가는 것으로 매듭지어진다. 다른 한편 궁극적으로 이러한 분리를 가져다준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본문은 다윗을 그의 대적자인 사울로부터 분리함으로써 다윗의 전정한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p>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가 452장/통일 찬송가 505장)
통독	사무엘상 24장
본문 내용	사울이 삼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 황무지로 옵니다. 거기서 발을 가리러 다윗이 숨어 있던 굴에 들어갔지만, 다윗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이유로 그를 해하지 않고 겔옷자락만 베어냅니다. 그리고 이후 사울에게 자신에 대한 추적을 멈추어 줄 것을 큰소리로 호소합니다. 다윗의 호소를 들은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선을 베푼 것에 감사하며, 이러한 행동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하며,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해악을 끼치지 말 것을 맹세하게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생각해보기	
1	<p>사울을 살려준 다윗(엔게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3천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다가 뜻하지 않게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있는 동굴로 들어옴 (2) 다윗의 일행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여 다윗에게 사울을 처치하도록 조언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겔옷만 베었을 뿐 그의 일행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시함 (3)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이 미음이나 죽임당할 까닭이 없음을 호소하고 자신 에겐 사울을 해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함 (4)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윗에게 사과한후 자기의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당부한후 기브야로 돌아감 (5)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도전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림이 마땅하다.
핵심 단어	24:5 다윗의 마음에 찢려 - 왕의 겔옷자락을 자른 다윗에게 나타난 일차적 반응이다.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레브'는 일차적으로 '심장', '가슴'을 뜻하나 더 많은 경우 '지성', '감성' 은 물론 전인격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된다. 그리고 '찢려' 에 해당하는 '와이야크' 의 원형 '나카' 는 '치다', '때리다' 라는 뜻이다. 본문에서는 '마음을 때리다'라는 의미로 쓰여 '양심의 가책'을 나타내고 있다. 다윗은 사울의 웃자락을 베었던 일 자체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다윗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무고함을 변호하기 위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11절), 다윗은 이러한 행동조차도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종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찬송가 588장/통일 찬송가 307장)
통독	사무엘상 25장
본문 내용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마온에는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는데, 다윗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지원을 청합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사환들에게 분노하며 거절합니다. 이에 다윗은 분노하며 사백 명가량을 데리고 나발에게로 갑니다. 아버가일은 남편이 다윗에게 수욕을 입힌 것과 다윗의 군사들로 인해 나발의 소산이 지켜졌던 것, 그리고 이제 다윗이 나발의 집을 해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아버가일은 급히 떡 이백 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부대와 준비된 음식들을 가지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아버가일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지혜로운 말로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녀는 나발이 미련한 자이고, 자신은 다윗이 보낸 소년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흠대할 수밖에 없었음과 왕이 될 다윗이 무죄한 피의 주인공이 될 필요가 없다는 말로 다윗을 설득합니다. 마음이 누그러진 다윗은 아버가일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아버가일이 가져온 접대를 받아들이며 평안을 고합니다. 나발은 나중에 모든 일을 알고서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다가 열흘 뒤 여호와의 치심으로 죽게 됩니다. 다윗은 아버가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생각해보기	
1	<p>나발과 아버가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음을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라마에 모여 애곡함 (2)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가 다시 과거에 자신이 머물렀던 십광야 근처 마온에 이룸 (3) 이때 다윗이 일행의 양식을 위해 그동안 보호하는 담과 같은 역할을 담당해 주었던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나발이 다윗을 모욕한 채 도움을 거부하자 다윗이 분노하여 나발을 징치하려 감 (4) 이 소식을 접한 나발의 아내 아버가일이 지혜를 발휘하여 사태를 진정시킴. 나발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자 다윗은 아버가일을 아내로 맞이함 (5) 다른 이의 도움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겸손한 자세로 남을 돕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자.
핵심 단어	25:39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도 - 본문은 '그리고 그의 종을 악으로 부터 방지하신 여호와가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라는 의미이다. 다윗은 자기가 나발과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복수가 악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아버가일이 자기에게 와서 나발을 치는 일을 미리 막았던 일이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고백했다. 다윗은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당신의 택한 자를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